



◁예불에 참여할 수 없는 원생을 제외한 원생 1백여명은 불편한 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후 5시45분 예불을 병행한다.



◁매일 가족을 목욕시키는 것은 배드일 수 없는 일. 스님들은 일손이 부족해 더욱 바빠졌다.



◁거동이 불편한 무의력노인들은 더욱 의로움을 탄다. 두명의 간호사는 건강도 돌보고 다정한 말벗이 된다.



◁총무부장 요전스님과 함께 셀메타기를 즐기는 원생들.

“소쩍새마을 새 둥지 틀어요”

소쩍새마을 황성군 안흥면에 종합복지타운 9월착공
 19만평 부지에 장애인복지센터·병원·학교 등 계획
 382억여원 예산 복지불사... “자비손길 필요해요”
 정부보조금 한푼 없어... IMF영향 후원금등 줄어



◁19만평 대지에 3천여명의 가족이 함께 살게되는 새로운 소쩍새마을의 구상도 ①대웅전 ②중앙본관(병원, 공동이용시설) ③편관 ④장애인부부 주택 ⑤특수학교 ⑥자립복지센터 ⑦직원숙소 ⑧연수원·체육관 ⑨재활 직업장 ⑩재활농장 ⑪장애인복지센터 ⑫노인요양원

진중일침 흘리는 찬상바라기의 꿈/ 관세음 보살 시현으로 읽어 내리지 못한다/ 머리에 린 곰팡이 왕관처럼 두르고/ 반쯤 쓴으며 받아먹는 끼니때의 하얀 밥알/ 한 톨의 쌀만도 못한 왕족의 후예로/ 그렇게 한 백년 누워 와물로 멀추어라/ 아나예요, 앉고 싶어요, 뛰고 싶어요 / 이 땅의 자식으로 크고 싶어요.(김숙희 시인의 '소쩍새마을2-왕자와 공주' 중에서)

소쩍새가 새로운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 승가원(이사장 지하스님)이 소쩍새마을(원장 보각스님) 건립·이전불사를 가시화 하기 시작했다. 승가원은 지난 2월5일 황성군 안흥면 농지위원회로부터 '승가원이 종합복지타운 건설 부지를 매입해도 좋다'는 내용의 허가서를 받아냄으로써 종합복지타운 건립불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소쩍새마을(원장 보각)은 부지매입과 동시에 3월말부터 종합복지타운 건설 예정지인 강원도 황성군 안흥면 송한리 일대 부지 19만평 중 4만여평의 부지에 재활농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제 서막을 연 종합복지타운 건립불사는 불자들의 힘을 모아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장애인·고아·무의탁 노인 등 원생들에게도 편안한 종지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승가대학교 부설 승가원이 소쩍새마을을 인수한 95년 7월부터 추진되었다. 복지타운 안에 재활병원과 특수학교, 양로원 등을 고루 갖춰 원생들을 불편함이 없이 돌보겠다는 생각에서다.

지난 95년 7월 가짜승 일력사건 등 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쩍새마을은 이제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다. 가족들도 처음 9명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났고(현재 291명) 시설도 나아졌다. 하지만 지난해 불어닥친 IMF한파로 인한 20% 정도의 후원금(후원자는 2만여명) 감축과 자원봉사자 감소, 인원에 비해 좁은 시설 등이 새로운 난제가 되고 있다.

96년 하반기에 증축공사를 하고 1백여명의 원생이 새로 입소해 지난해 초에는 2백여명의 가족이 포화상태를 이루었다. 올해 초까지 다시 1백여명이 늘어났다. 한달에 평균 7~8명의 장애인들이 마을에 입소할 셈이다.

전국 장애인의 수는 대략 450만명. 오갈 데 없는 노인과 아이들은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때문에 현재 접수된 입소 희망자가 6백여명에 이를 정도다. 소쩍새마을은 내년에는 식구가 1천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원이 늘다 보니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하는 원생관리에도 어려움이 많다. 매일 가족들을 목욕시키고 하루에도 몇번씩 갈아입는 옷을 세탁하는 일손이 부족해 스님(5명)과 보육사(8명)들은 눈코 뜰 새가 없다. 특히 단체후원자의 발길이 뜸해져 대가족을 먹고 입고 치료하는 일도 예전 같지 않다. 쌀·약값, 치료비가 2배, 이들을 돌보아 하는 손길도 2배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후원이 줄었다. 명색이 복지법인이지만 조립식 가건물(차음엔 비닐천막집)이라 시설인가를 받지 못해(치약산 국립공원경내라 건축허

가 안남) 정부보조금은 한푼도 들어오지 않는다. 상임법사인 한복스님은 "부식·교육·연료비가 엄청나게 폭등했지만 경제난으로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직원들은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한 등 쪼기 운동'과 같은 작은 실천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소쩍새마을 이전불사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승가원이 지난해 10월15일 발표한 종합복지타운 건설 계획에 따르면 19만7천49평의 부지에 전체 3백 82억 6천만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대차불사를 통해 불교복지의 새 장이 열리게 된다.

올 9월 토목공사에 착수, 우선 2천여평에 법당 연수원 생활관 등을 짓는다. 2000년까지 65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본관과 직원숙소 재활작업장 등을 건립하고 2001년까지 대웅전 장애인부부(현재 4쌍)주택 특수학교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2003년까지 1백26억원을 들여 종합복지타운의 핵심이 될 장애인과 노인(스님 포함)요양시설을 마무리하는 등 2005년까지 자

원봉사센터 및 연수·체육관시설을 모두 갖추기로 했다. 종합복지타운의 재원조달은 전체 투자예산 3백82억6천만원 가운데 20%는 승가원에서 부담하고 50%는 정부조달, 나머지 30%는 이벤트형사 수익금과 기부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그런 소쩍새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수용(收容)이 아니라 재활과 자립과 독립을 위한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스님과 직원 등 21명의 암아·아빠·형님·누나는 원생들과 최로예약을 함께 하는 한 가족이 되어 마을을 웃음꽃이 피는 동산으로 일궈왔다.

소쩍새마을 식구들이 내일을 밝고 환하게 살도록 하는 것은 함께 사는 이웃들의 몫이 되어야 한다. 풀어내고 간직하기는 쉽지만 내놓고 나누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소쩍새마을 식구들을 보면 '내놓고 나눌 수 있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매일 볼때마다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소쩍새마을을 찾아 원생들에게 자정면을 만들어주는 원주 태경양반점 지배인 김근배씨는 "돈과 물건이 없으면 말이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딸과 노력을 나눠도 된다"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관심과 애정"이라고 강조했다.

자비문중에 '무자비'한 사람이 많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되겠다. "중생이 아프므로 내가 아프다"는 유마거사의 법문처럼 본별심과 편견을 떨쳐 나와 이웃과 사회는 풀이 아남을 깨달는 것이 불제자의 의무가 아닐까. 이런 깨달음에서 나오는 참된 보살행이야말로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실천이요, '깨달음과 실천'의 조화가 아닐까.

"가장 없이 많지만 가장 거지없는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이란 총무과장 소회스님의 말처럼 소쩍새마을에는 그래서 부처님·보살로 가득하다. 탁한 물과 진흙에서 연꽃이 더 곱고 아름답게 피듯이.

김재경 기자

소쩍새마을 원장 보각스님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무자비 아닙니까. 10년 이내에 소쩍새마을을 3천명이 함께 사는 종합복지타운으로 만들겠다는 원을 부처님 앞에서 새웠습니다. '스님 양로원'도 지을 겁니다. 마을을 모아 주세요!"

소쩍새마을 원장 보각스님(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회복지연구소장)의 소원은 '소쩍새마을을 3천명이 함께 살 수 있는 큰 집으로 옮기고 사랑과 나눔과 지바를 세상 사람 모두가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다.

“자비 실천하지 않으면 무자비”

스님은 방문자들로부터 가끔씩 듣는 "이런 데를 도와야겠네요"라는 말을 가장 싫어한다. "소쩍새마을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더 어려운 시설을 도와야 한다는 불자들의 소박한 말이 이해는 가지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란 것.

"양적 팽창을 발전으로 보는 시각이 문제입니다. 프로그램 등 그 내용을 살펴야 하고 시설이 좋아질 수록 비용이 더 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값싼 동정심을 유발하는 복지사업이나 이에 관심을 갖는 후원자들의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스님은 또 "현대적인 복지시설은 이제 인간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서구적인 시련을 겪어야 한다"고 말한다. "복지시설이 규모면에서 커지더라도 소그룹화해 '가족' 개념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복지관이다.

- 전화: 사회복지법인 승가원(02-928-0750)으로 전화하면 지로용지를 보내준다.
- 지로: 지도용지에 주소와 정확히 기입, 은행·우체국에 내민 저절로 후원회에 가입된다. 지도용지가 없으면 은행·우체국에 있는 '계좌(입금)이체통지서'에 지로번호(7625637)와 '보내는 사람'을 기록해서 은행에 내면 된다.

소쩍새를 돕는 방법

- 자동이체: 매달 은행에 납부하기가 번거우면 거래은행에 통장과 도장을 갖고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예금주는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며, 우체국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다.
- PCS '부디피아 포교기금' 신청: 소쩍새마을 등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부디피아 포교기금' 마련을 위해 현대불교신문(02-737-8881)에서 휴대전화 PCS10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가입신청을 하게 되면 월 사용료의 5%가 사용자의 추가부담 없이 소쩍새마을에 후원금으로 들어가게 된다. IMF한파로 후원금이 크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후원방법이기도 하다.



◁흥성철 특수교사가 손발이 불편해 머리에 타이핑 장치한 한 원생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다.

인터넷으로도 소쩍새마을 방문

부다피아에 '홈페이지'

소쩍새마을을 인터넷으로도 방문할 수 있다. 본사가 개설한 '소쩍새마을 홈페이지'는 소쩍새마을의 변화된 모습과 미래의 계획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관심을 모으기 위해 제작됐다. 소쩍새마을 상임법사 한복스님이 짠 인상깊은 사진과 훈훈한 내용의 글로 채워져 있다.

메인 메뉴는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침 제조에서부터 공양, 간식, 운동, 목욕, 취침 등 소쩍새 가족의 하루를 담은 '소쩍새 가족의 삶' △보육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들의 도움으로 특수학교, 병원치료, 재활작업장, 재활농장에서 새 삶을 추구하는 가족들의 노력을 소개한 '소쩍새 가족의 재활'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스님

들을 비롯 재과장·중국집 아저씨, 군인, 미용사, 목욕·방청소를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를 소개하면서 새로운 자원봉사자를 찾는 '소쩍새를 돕는 사람들' △황성 종합복지타운의 이모저모를 소개한 '소쩍새마을의 미래' △원장스님 인사 △후원금 보내는 방법 △각종 교통편을 그림으로 설명한 '소쩍새 마을을 찾아서' △소쩍새 앨범 등으로 꾸며져 있다.

주소=http://www.buddhapia.com/mem/sojukbird/